

돈 굴릴데 없는 은행들 가계대출 올인

저금리 시대 기업 예금 유치보다 수익높아 선호

수익구조 단일·획일화 금융권 위기 재현 우려

저금리로 마땅한 자금 운용처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외면하고 손쉬운 가계대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장기적으로는 수익구조가 단일화·획일화 됨으로써 금융권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22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저금리 고착화로 고액 예금에 대한 수신 금리 부담이 가중되자 기업이나 자산가들의 예금을 유치하는 직원에 대한 핵심성과지표(KPI) 가중치를 큰 폭으로 낮추는 대신 가계대출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기업(법인)의 예금 수 십 억원을 유치하는 것보다 개인 대출 고객을 유치하는 게 은행 수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지역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행원들이 일은 고되고 책임이 큰 기업 대상 여·수신업무를 꺼리고

있다”며 “은행 역시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예금보험료 등 중개비용만 하더라도 예금액의 1%가 넘는데, 남는 게 없는 여신에 굳이 애쓰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 시중은행의 여·수신 동향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광주·전남 지역 여수신 동향을 보면 광주·전남 지역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은 증가세가 축소된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대출 모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증가폭이 5064억원에서 3238억원으로 축소됐지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1748억원 → 2291억원)됐다.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 역시 1197억원으로 전월(657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예금 금리는 계속 낮아지는

데 은행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커지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작년 말 연간 2.62%였던 예금금리(순수저축성예금 기준)는 지난해 3월 말 2.61%, 6월 말 2.57%, 9월 말 2.36%로 낮아졌다. 지난해 11월 예금은행의 평균 저축성 수신 금리는 전월보다 0.08%포인트 하락한 연 2.1%로 사상 최저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올인은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부동산거래를 위한 대출이라기보다 자영업자들이 긴급 운영자금을 확충하려고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형태인 데, 이는 장기적으로 자영업자의 몰락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요소로 은행권에 부담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위원은 “은행이 단순 영업 형태의 예대마진 의존하며 수익구조마저 획일화·단일화되어 있으면 지난해 증권업에서 나타났던 위기가 은행권에서도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혁신도시 입주기관 위한 음악회

지난 21일 빛가람 도시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나주시민과 혁신도시 입주기관 임직원·가족을 위한 빛가람 신년음악회’ 공연이 열렸다. 한전과 광주시향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나주시민과 혁신도시 입주기관 직원들 간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 제공〉

설 차례상 전통시장 20만·대형마트 30만원 선

설 명절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보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이 10만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2일 “차례상 비용으로 전통시장에서 구입시 20만8000원, 대형유통업체는 30만1000원 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T가 지난 21일 전국 17개 지역의 전통시장 16곳과 대형유통업체 25곳을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소고기, 배, 대추 등

26개 제수품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같은 시기 aT 조사결과 전통시장에서 20만6330원, 대형유통업체에서 29만4755원이 든 데 비해 각각 1670원(1.1%), 6245원(2.1%)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 bigkim@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20.82 (-0.41)

▲ 금리 (국고채 3년) 2.06% (+0.02)

▼ 코스닥 578.42 (-5.92)

▲ 환율 (USD) 1084.90원 (+1.50)

새해 새 설계

강 남 경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고품질 농산물 수출 새 성장동력 만들것”

지역단위 연합수출조직 구성

팜스테이 마을 특산물 개발

농촌 고령자 맞춤 복지 전개

“새로운 시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농업시대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올해부터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을 이끌게 된 강남경(55) 선임 본부장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변화의 원인을 만들겠다”며 화합과 상생,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 본부장은 역점 추진사업으로 ▲산지유통 강화 ▲수출을 통한 농축산물 판로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수익구조의 다변화를 통한 농·축협 경영기반 강화 ▲깨끗하고 공명한 전국동시조합선거구 구현 ▲농촌의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강 본부장은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으로 농업여건은 어려워만 지고 저성장여파로 지역 경제도 위축돼 있는 상황이지만 농협의 1만여 임·직원이 농산물 수출판로를 확대하고, 새로운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인 실익사업을 적극 발굴해 협동조합 정신으로 무장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한·중 FTA로 인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고품질 안전 농산물 수출을 우리 농협의 새



로운 성장동력사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의 연합수출조직 구성,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가공 조성, 수출전문인력 양성 등을 세부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농산물의 6차산업화 전략과 관련 “지역의 32개 팜스테이마을 중 2차산업인 농산물 가공이 가능한 마을을 엄선해 마을 특산품으로 개발하고, 이를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해 안정적으로 판매망을 구축하는 등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의료·문화 등 생활여건을 강화

하고, 공동체문화를 복원해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도 다졌다. 농업인·소비자·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농협, 농축협의 수익구조 강화를 통한 건실한 농협, 각종 사고예방으로 청렴한 농협, 내실있는 복지사업 전개해 따뜻한 농협을 핵심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각종 사업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3월에는 전국에서 조합장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로 새로운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올해 역시 지역 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강화할 생각이다. 내실있는 복지사업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전남을 만들어 지역 농업·농촌·농업인이 50년, 100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다.

강 본부장은 “출몰노인,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대상별 맞춤형 사업을 전개하겠다”며 “말뼉되어 드리기, 밑반찬 봉사, 이불세탁봉사, 이미용봉사, 다문화가족 라온제나 멘토링 사업 등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나주 출신인 강 본부장은 전남고과 전남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6년 농협에 입사해 완도군지부장, 전남본부 경영지원부 부분부장, 구례교육원장, 중앙회 상호금융수신부 부장 등을 역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은 ‘해외송금통장’ 판매

광운은행(은행장 김한)은 정기적으로 해외에 송금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동송금 및 환율우대서비스 등의 금융편익을 제공하는 ‘해외송금전용통장(Auto Transfer Account)’을 22일부터 판매한다.

자동송금 처리로 절감된 비용을 환율 및 수수료 우대로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이 통장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자녀에게 송금하고자 하는 부모, 국내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고객 등의 불편함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에 가입하려면 은행을 방문, 통장을 개설하고 자동송금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해외 송금 최소금액은 10만원(미화환산 100불) 이상이며, 송금 일자 및 금액을 지정할 수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광주인력개발원·호남직업학교·폴리텍5대학 광주캠퍼스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센터 선정

2015년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훈련센터에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과 호남직업전문학교, 한국폴리텍5대학 광주캠퍼스 등 3개 기관이 선정됐다.

광주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위원장 박용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는 22일 2015년도 광주지역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훈련센터와 일학습병행제 전문지원기관이 최종 확정됐다

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센터에서는 총 112개의 훈련과정을 통해 989명의 신규 인력양성

과 4032명의 향상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동훈련센터에는 26여억 원에 이르는 인프라 지원금과 115억원이 넘는 훈련비가 지원된다.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지역·산업연계 중심이 돼 기업의 인력과 직업훈련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체 맞춤형 훈련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광주지역은 양성훈련 100%, 향상훈련 115%의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임동룡기자 lexian@kwangju.co.kr

한국전환번호
1636 걸고 **민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검색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1588, 1544, 1644 등과 같은 **대표번호 서비스**로 1636 뒤에는 업종, 상호명 등 모든말이 전화번호가 되는 차세대 음성인식 통신 서비스입니다. 1636전화걸고 사용중인 상호를 말씀하시면 연결됩니다.

기본의 숫자번호
바꿀필요 없습니다

한글 전화번호 1636은 기존에 사용하던 숫자 번호에 **한글번호**를 커버링 하는 방식으로 1636을 통해 전화를 걸면 기존에 설정해두신 숫자 번호로 자동 연결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전화번호를 해지하거나 바꿀필요 없이 한글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

1636 음성인식서비스는 애플 아이폰의 음성 인식 서비스시리를 개발하고 삼성전자의 S보이스 서비스에 기술력을 제공하는 세계 1위의 음성 인식 기술회사인 뉴왕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공됩니다.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014미스코리아 '眞'경선안양이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모든 강사진들이(주)폴피어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2015학년도 9월학기 입학생 모집요강

성공 중국유학 내신 NO! 수능 NO!

모집 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201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검정고시 가능

모집 기간 ▶ 2015년 2월 28일까지 (중국어 미학습자 신청가능)

모집 인원 ▶ 30명

수강 기간 ▶ 2015년 3월~8월 (6개월) (1일 6시간, 주 30시간, 총 720시간 이수)

강의 내용 ▶ 중국유학준비과정 중국어 집중훈련 수료 후 중국대학 입학

GoChina 중국 전문 인력양성

www.gotochina.co.kr

입학상담문의

233-9582 (중) 구오탈리